

WTO규정하의 우리밀정책의 활로

김명환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에 대한 수매가 중단된 게 1984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밀에 대한 수입 자유화가 된 게 1990년입니다. 지금까지 밀에 대한 정책연구보고서가 한 권이 없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검증안된 것입니다.

겨울 작물 재배 면적을 보면 1981년에 총 동계 작물의 재배면적이 81년에 47만ha였습니다. 91년에는 10년에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서 24만ha, 그리고 2001년에 거기서 좀 더 줄어서 22만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보리가 전체 동계작물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밀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밀과 호밀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감자가 좀 줄었고 유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겨울채소인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이 있지만 거의 배추를 재배하죠. 기타 채소인 남부지방의 당근, 양배추, 파 등은 지금 꽤 늘어나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동계작물이라는 것은 맥류는 줄어들고 채소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2000년 마늘협상 이후 재배면적이 4만ha에서 20%정도 줄었는데 그 면적들이 양파, 겨울배추, 양배추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해 초에 그 가격들이 대폭 하락했어요. 양파 경우는 반이 떨어지고 배추도 물론 그랬고 양배추도 그랬습니다. 즉 이것은 마늘 하나가 불뚱이 튀면 이것이 겨울 작목하는 농가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하는 것이죠. 마

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밀 문제는 단순한 밀 문제가 아니라 마늘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보리 문제도 보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평균 생산량이 거의 20만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식용으로 먹는 것은 1/3밖에 안됩니다. 7만톤. 이 세계에서 보리를 식용으로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맥주용 아니면 가축사료로 쓰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식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MMA도 보면 작년에 7만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잉구조입니다. 이것도 국내 생산이 과잉이 아니라 MMA로 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있느냐... 전부터 지금 주로 다 가공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공용은 1년에 24만톤을 쓰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을 주정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는 쌀이 남으면서 보리로 하던 걸 쌀이 주정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적어도 4~5년 동안은 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쌀의 파편을 맞아 보리의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 밀입니다. 밀의 경우는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식용을 볼 것 같

으면 97년에 98만톤에서 2001년 식용이 140만 톤까지 식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공용이나 사료용은 값에 따라서 밀의 경우는 소비량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자급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겨울 작목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품목이라고 생각해왔던 보리와 마늘, 이것에 대한 소득대체 작목으로서 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밀 재배를 하면 재배를 해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밀의 품목과 비교가 될 품목들을 써 봤습니다마는 쌀은 10a당 한 71만원, 쌀보리가 19만원, 겉보리가 16만원, 밀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계산해 본 결과는 26만원, 마늘이 140만원, 양파도 140만원, 콩이 30만원, 그리고 콩하고 밀 윤작체계로 가져간다면 그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콩하고 밀은 56만원 정도가 10a당 소득입니다. 노동 투입시간을 보신다면 겉보리가 제일 시간이 덜 들고 쌀, 보리, 밀이 덜 들고 그 다음 쌀, 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소득으로 본다면 쌀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규모화만 된다면 괜찮은 농사죠. 보리보다 좀 더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요가 잘 안 따라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를 다시 말씀 들이자면 밀, 콩, 잡곡체계 표준 소득은 564천원, 쌀에 비해서 142천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잉부족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 쌀을 밀하고 콩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 150만원만 주면 전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150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입차료보다 싸기 때문에 입차지를 지주들이 가져가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밀에 대한 수요가 가장 중요하기 때

문에 수요가 안 받쳐주면 이것도 과잉 재고가 되어 쌓이기에 전작 보조 대상 면적을 너무 급격히 늘리는 것보다는 수요 증가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인데요, 지금 우리밀은 84년부터 정부 수매가 중단되고 90년대는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관세율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관세율을 200%,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입 개방화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 남을 수 있으면 좋은 거란 얘기죠. 특히 WTO체제하에서 AMS가 계속 감축되기 때문에 정부의 수매량은 계속 빠른 속도로 줄어 집니다. 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특히 금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 쌀 소득보존 직접 지불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2001년 경우가 되면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쌀 가격 떨어지는 분에 80%정도를 매년 주는 거기 때문에 2010년이 되면 제정에서 쌀 보존 지불제로 줄 돈이 한 1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수매 재원 자체가 1조원 그 정도이기에 사실상 몇 년 안 가서 수매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이 4배짜리 우리밀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3배, 2배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추측인데, 품질 가격 3정도로 낮아지면 중간제로서의 수요가 많이 뜰 겁니다.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들, 그리고 2정도 낮아지면 최종제로서의 수요도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밀본부랄지 농협중앙회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3%씩 인하한다, 매년 5%씩 인하한다 그렇게 하고 농가들에게 미리 말해야 되고 그리고 값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수요확대,

2 주제발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물량을 더 늘려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습니다. 정책으로서 농림부는 재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보리수매물량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매 가격도 동결 내지는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민간수요업체들이 밀에 대한 민간 수매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잉구조의 쌀을 밀, 콩으로 전환해서 전작보조금을 줘도 대상면적을 급격히 늘리지 않게 하고

협정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지원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지자체들이 밀 재배의 규모화를 통한 가격인하가 될 수 있도록 건조저장 시스템을 이랄지 품질인증 장치랄지 필요하다면 가격이 계속 인하되면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노력이 잘 병행되면 5년뒤, 10년뒤에는 가격차가 이렇게 되면 우리밀도 충분히 해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㉟

『농업기반대상』 추천자 공모

93년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조성 관리·기술개발 및 환경보전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농업기반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시상요강 ●

- ◆ 시상부문 : 생산기반·농업경영·친환경농업·연구개발부문
- ◆ 시상내용 : 상패 및 상금 (개인 1,000만원/ 단체 2,000만원)
- ◆ 제출서류 : 추천서1부, 공적서1부,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1부, 공적증빙자료, 명함판사진3매
- ◆ 접수기간 : 2002년 10월 15일 (단, 본회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5일까지 본회로 접수요망)
- ◆ 문의사항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연수지도부 02-794-7270

사람을 구합니다

1. 모집직종 : 단순건물관리, 청소, 경비
2. 모집인원 : 남·여 각1명(부부도 가능함)
3. 고용형태 : 계약직
4. 연 령 : 45~55세(개인에 따라 유동적임)
5. 학 령 : 무관
6. 보 수 : 월정 남녀 각100원수준(협의조정 가능)
7. 근무시간 : 08:00~21:00(기숙형태임)
8. 휴 일 : 상호협의
9. 직무내용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소재 본회(농업인단체) 건물(연수시설)의 단순관리 및 청소(약간의 경비업무포함)업무를 하며 기숙이 가능한재(3식 식사제공)
10. 기타사항 : 상호협의
11. 문 의 처 : 본회 총무부 (전화 02-794-7270)

2002년 9월 10일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